

CGN TV

M A G A Z I N E | Summer 2016_Vol.13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CGN TV

방송개편 특집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 TV T.02)796-9800 F.02)749-6638 www.cgntv.net



우리 꼭 만나요

북한에 남아 있는 은주 씨 어머니께

보고 계시죠? 우리 은주.
 어머니가 낳아서 예쁘게 키워서 저에게 보내 준 딸.
 이곳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남한 사람들과 격려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잘 돌볼게요.
 그리고 통일이 되는 그날
 제가 잡고 있는 이 손,
 어머니 손 위에 얹어 드릴게요.
 그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통일되는 그 날 우리 꼭 만나요.
 고맙습니다.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중에서



CONTENTS

Summer 2016_Vol.13

포토에세이 사진작가 신미식

I. 특집 - 2016 CGNTV 방송개편

- 04 나눔·선교·미래
- 06 프로그램 & 진행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정은아 아나운서
 <거룩한 바보들> 최윤영 아나운서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가수 김영우

II. 프로그램

- 12 현장스케치 제작보고회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QT>
- 16 CGN중인 선교·교육 스페셜
 <나침반> & <나침반 바이블>
 <우리가 몰랐던 무슬림2>

III. CGN 소식

- 18 선교지의 아침 태국 김택곤 선교사
 문화 찬양 사역의 한 길
- 20 현장르포
 일본 구마모토 재해 현장
- 22 CGN스토리 2016 전 직원 아웃리치
 미디어 선교사들의 여름
- 24 CGN 뉴스 국내, 해외
- 28 후원자 스토리 드림은 저금통
- 29 시청소감 신규 프로그램 및 웹드라마
- 30 요일별 편성표
- 32 후원안내
- 33 에필로그 이용만 장로(CGNTV 운영위원, 前 재무부 장관)
 말씀 전하는 核무기 CGNTV



COVER STORY

CGNTV는 2016년 방송개편을
 새 MC와 함께 합니다.
 (왼쪽부터) 최윤영, 정은아, 김영우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6년 6월 30일 (통권 제 13호)
 발행처 CGNTV (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유재건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홍보팀
 진행·편집 현아영, 어대준, 김란, 조인애
 글 조인애
 사진 어대준, 여준원
 디자인·인쇄 페이지원 (02-757-3111)



행복을 나누는 사진

라오스에서 돌아왔다.
조금 전까지 몽족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었는데,
떠나기 전 설렘, 함께했던 그들에 대한 그리움,
지난 4박 5일의 시간에 만감이 교차한다.
그곳 사람들은 가족사진 촬영 후에도 쉽게 발길을 떼지 못했다.
손수 정성껏 만든 작은 지갑을 내밀던 그 손길.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았지만 눈물로 배웅하던
그들의 정과 사랑이 떠오른다.

흔히 세상이 팍팍하다고 하지만 주변에 조금만 손을 뻗어보면
온정 가득한 눈빛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가족사진을 찍는 것에 익숙지 않았지만,
그 작은 나눔을 통해 오랜만에 가족과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눴다.
그들에게 전한 액자 속 추억이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 하길.
4박 5일의 짧은 나눔은 이렇게 내게도 행복으로 남았다.

2016 CGNTV 방송개편

나눔 · 선교 · 미래

CGNTV가 2016년 중반기 대대적인 방송개편을 단행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방송'을 목표로, '나눔', '선교', '미래'를 앞세워 다채로운 콘텐츠들을 마련했다.



나눔

'나눔'은 '공유, 공감, 공생'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담았다. 신규 프로그램 <거룩한 바보들>(진행 최윤영 아나운서, 6월)을 통해 '예수 바보'로 살고 있는 우리네 이웃들을 소개한다. 또한 일평생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고국으로부터의 특별한 선물과 감동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9월 방영 예정)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나눔 프로젝트들을 하나 둘 선보일 예정이다.

선교

글로벌 선교교육방송 CGNTV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진행 정은아 아나운서, 6월)를 선보였다. 또한 선교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계속해서 주력한다. 내한 선교사 130주년을 맞아 지난 해 제작된 <블랙마운틴 :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와 <女선교사, 조선을 비추다>는 국내외 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올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한국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조명할 계획이다.<다큐 서서평> 11월 방영 예정

미래

'차세대'를 위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도 개발했다. TV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10, 20대들의 성향을 염두해 SNS를 매개로 한 다양한 공감 영상들을 선보인다. <KNOCK>는 짧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다양한 장르의 영적이고 감동적인 영상들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고민을 다룬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QT>(6월)를 비롯해 신규 프로그램 <김영우의 스윗사운즈>(6월)도 다양한 장르의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무대로 매주 금요일 밤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정은아 아나운서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CGNTV예요.”

진행 정은아 아나운서 / 패널 이지희, 표인봉 외

| 방송시간 | 매주 화 오전 11시 30분



‘통일한국’을 향해 갈 ‘통일버스’가 꿈을 신고 첫 시동을 걸었다.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는 탈북민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이 통일한국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탈북민 공감 토크쇼이다.

탈북민들은 일정 기간 남한 적응 훈련을 받은 후 남한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통일버스’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의 고민을 귀담아 듣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나간다. 이에 온화하고 친근한 말투로 게스트를 따뜻하게 품어줄 정은아 아나운서와 유쾌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줄 개그맨 표인봉, 방송인 이지희, 탈북민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

정은아 아나운서와 CGNTV와의 인연은 특집 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하루>에서부터 시작됐다. “방송 전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적이 없었다”고 고백할 만큼 그녀는 방송 전 기도로 준비했고 자신이 예견한 데로 방송 후 많은 감동과 힐링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 속 그녀의 모습은 기존과 또 다른 느낌이었다. 이후 그녀는 CGNTV 드림은 콘서트 진행, 후원 영상 작

업 등도 망설임 없이 동참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렇듯 복음을 사모하는 그녀가 왜 이제야 기독 방송에 출연했는지 궁금했다. 그 뒤엔 그녀의 회심과 하나님께서 그녀와 동행하신 지난 10년의 세월이 있었다.

그녀는 10여 년 전 친구의 초대를 받고 가던 길, 꽉 막혀있던 마포대교 위에서 회심을 경험했다. 결혼 후 20여 년 정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던 때였다. 그녀는 일 때문에 힘든 탓도 있었지만 축하받을 일이 있는 친구에게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소 짜증이 나 있다는 것을 느



졌다. 순간 가슴 깊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려구나’ 싶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그녀의 동생이 늘 그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첫발을 내디딘 교회가 온누리교회였다. CGNTV가 시작되던 때이기도 했다.

“CGNTV서 진행을 하는 것은 조금 망설여졌어요. ‘초신자 같은 믿음인 내’라는 생각이 있었지요.” 항상 교회 뒷자리에서 조용히 말씀만 듣고 돌아갔던 그녀가 매주 말씀을 받으면서 어느덧 CGNTV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진행은 다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다. 대신 그녀는 후원으로 사역에 대한 애정을 대신했다.

그녀는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CGNTV와 선교사님이에요”라고 할 만큼 CGNTV 사역을 응원한다. 선교사님들의 모습이나 그들을 향해 방송하고 있는 CGNTV를 생각하면 감동이 크다. 이런 마음 때문에 ‘통일버스’ 녹화현장에서 분단 위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가운데도 스태프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출연자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남다른 마음가짐이 느껴졌다. “당신이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라며 스태프와 눈을 맞추고 PD의 사소한 일까지 기억한다. 그 모습에서 단지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아닌 이 팀의 일원, 선배 같은 인상이 풍긴다.

<통일버스> 첫 녹화를 마친 후 그녀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탈북자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어느 쪽의 편견 혹은 선입견이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진행에 앞서 그녀에겐 그 부분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녹화가 진행되면서 그 벽이 이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 녹화를 시작할 때 패널로 참석한 성경 통독학교 학생들부터 벽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녹화를 진행하면서 이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인간대 인간으로 만나서 그 벽을 허물려고 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탈북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는 고민 솔루션 프로그램을 표방하지만, 서로가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며 함께 통일한국을 준비하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이다.

거룩한 바보들

최윤영 아나운서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가 되고 싶어요.”

진행 최윤영 아나운서

| 방송시간 | 격주 금 오전 11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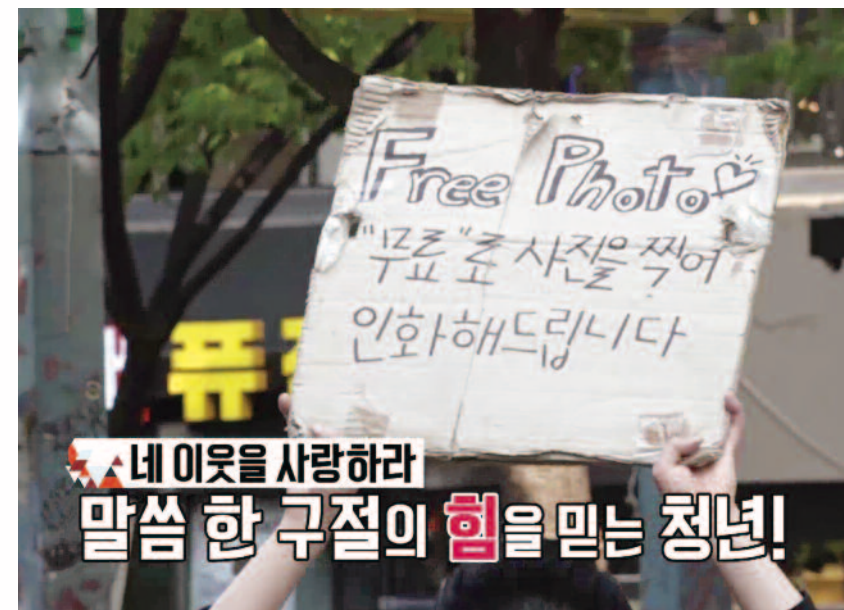
평범하지만 특별하고, 혹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조금은 바보스럽기까지 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가. 혹은 내가 주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가. <거룩한 바보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뜻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올해 팔순인 황신애 권사는 한순간도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성경 암송의 여왕이다. 길에서도 암송 쪽지를 들고 다니고 집안 구석구석 성경 구절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녀가 무던히 말씀 암송을 이어가는 것은 말씀을 외우면 외울수록 말씀이 더욱 은혜롭고 삶 또한 젊고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포토그래퍼 송재한 씨는 직접 거리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사람들에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고 그 값으로 나눔을 약속받는다. 그가 만든 나눔의 값은 모두 얼마나 될까.

흔히 자신의 실리에 따라 편의를 고려해 움직이는 세상에서 이들은 평범하지만 조금은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다. 더불어 사람들에게 설

명할 수 없는 평안함과 따뜻함을 전하기도 한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진행을 맡은 최윤영 아나운서는 편안하고 차분한 멘트로 그들의 삶을 들려준다. 거룩한 바보들. 최윤영 아나운서 또한 처음에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소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유명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을 주로 조명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바보들>은 그녀에게도 예상 밖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점이 프로그램을 뜻깊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거룩한 바보들의 주인공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자신의 삶만 들여다봐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온전하게 드리려 하죠. 그 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어쩌면 이런 점들이 보통의 크리스천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고 와 닿지 않을까 싶어요.”

그녀가 이 프로그램을 맡게 된 것은 때마침 그녀도 기독교 방송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찰나였다. 그녀는 지난 4월 친구의 권유로 처음 교회 셀모임에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 계시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고 기독교 방송 일에 뜻이 생겼다. 그녀는 어떤 프로그램인지가 중요하진 않았다. 그저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했



다. 짧은 장면 하나 촬영할 때도 함께 기도하는 팀들이 새롭고 반가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려는 그녀의 마음에서 언뜻 거룩한 바보의 모습이 비친다. “거룩한 바보가 되는 길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제가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가 돼야겠다는 생각이예요. 저도 기복이 많은 편인데 어느 분께서 기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삶은 그저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최근 그녀는 교회 멘토링 프로그램에 동참해 불안과 걱정이 많은 20대들을 위해 멘토로 섬기고 있다. 주일마다 세 명의 대학생 멘티들을 만나는데 일주일 중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질 정도로 그 시간이 소중하다.

그녀는 <거룩한 바보들> 첫 방송 오프닝에서 유독 행복해 보였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돼서일까, 그녀가 전해주는 진정한 ‘예수 바보’, 우리가 만나야 할 <거룩한 바보들>의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가수 김영우

“음악으로 평안과 위로를 주고 싶어요.”

진행 김영우

| 방송시간 | 매주 금 저녁 10시 40분

매주 금요일 밤 하나님을 향한 ‘스윗사운즈’ 가 TV를 가득 채운다. CGNTV는 남성 그룹 ‘스윗소로우’의 멤버인 가수 김영우 씨를 MC로, 기독교 방송 유일의 음악 프로그램을 또 한 번 무대에 올렸다. 공개방송인 ‘스윗사운즈’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실력과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출연해 폭넓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첫회는 가수 박기영이 출연했다. 〈You raise me up〉, 〈The Lord's prayer〉, 〈Nella Fantasia〉 등을 부른 그녀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2회에선 김패션밴드가 출연해 노래, 무용, 연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진행자인 가수 김영우 씨는 출연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무대의 감상 포인트, 출연자들이 전하는 영적 메시지까지 놓치지 않으며 능숙한 진행 솜씨를 선보였다. 토크 또한 음악에 사연을 입히는 이야기들로 유쾌하게 이끌어 나갔다.

‘스윗사운즈’가 들려주고 싶은 음악은 무엇일까. 진행자인 김영우 씨를 만나 들어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뮤지션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소리들을 선보이는 무대”라고 밝히며 “음악이 그저 BGM(배경음악) 같아지는 시대에 음악으로 평안과 위로를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뮤지션 김영우가 전면에 나선 ‘스윗사운즈’는 어떤 색깔로 빛어질지 궁금하다. 이미 방송된 것을 보면, 그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무대를 즐기고 뮤지션들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잘 짚어 좀 더 음악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안정된 진행 능력도 돋보인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수니까 가수들의 고민 혹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뮤지션과 시청자 모두 편안한, 진솔한 무대를 선보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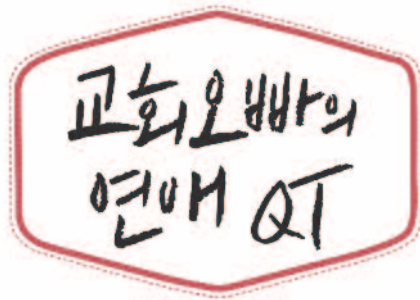
요즘 그는 동료들을 만나거나 TV를 봐도 바로 섭외 모드로 바뀐다. ‘스윗사운즈’ 1편을 장식했던 가수 박기영도 그와 함께 새벽기도를 나갔던 그의 ‘절친’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스윗사운즈’에 대한 그의 애정이 비단 프로그램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오래 전부터 CGNTV를 아끼고 있었고 사역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2013년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조명하는 프로그램 〈독수리 5형제〉의 패널로 함께한 바 있다. CGNTV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히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누구보다 CGNTV를 응원했다. 지방에 행사가 있을 때는 늘 CGNTV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작업실까지 가는 40여 분은 CGNTV의 말씀을 듣는데 할애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아끼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의 꿈은 좋은 메시지를 담은 좋은 음악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스윗소로우’라는 소속 팀명처럼 음악 외에 다른 요소 때문에 때 묻지 않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엿보이는 음악들을 하길 바란다. ‘스윗사운즈’에 출연할 많은 뮤지션들도 그와 같은 마음의 뮤지션들이 아닐까 싶다. 세상에서는 불금이라고 불리는 금요일 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찾아오는 〈김영우의 스윗사운즈〉를 만나보자.



“진짜 교회 오빠란 뭘까?”



CGNTV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QT>가 지난 6월 19일 CGNTV 홈페이지, KNOCK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 CGNTV <KNOCK>의 웹드라마 프로젝트 세 번째 작품인 <교회오빠의 연애QT>는 총 6부작으로 구성돼 전작들에 비해 내용이 확대됐고, 보다 공감 가는 스토리, 유쾌한 전개로 무장했다. 사전 공개된 예고편이 이미 대중들의 이목을 끌며 화제가 됐다.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의 새로운 시도인 ‘웹드라마’. 지난 6월 13일 진행된 <교회오빠의 연애QT> 제작보고회 현장에서 진행된 감독, 작가 및 주연배우 임지규, 임성언, 장광 등의 진솔한 제작 뒷이야기를 만나보자.



#1. 시작

〈교회오빠의 연애QT〉는 지난 해 여름 기획안이 나왔다. 기존의 콘텐츠와 다른 새로운 감각의 드라마를 만들어보고자 했던 감독과 작가의 생각에서 비롯돼 일 년여 만에 세상에 나왔다. 지난 해 8월 샘플 영상을 만들고 좀 더 세밀한 기획을 거친 뒤 올 봄에 촬영이 시작됐다. 봄꽃이 완연한 계절을 배경으로 주인공 요한의 우여곡절 많은 연애, 직장의 스토리가 시작됐다.

#2. 만남

주연인 교회 오빠 요한은 영화 〈백야행〉, 〈화차〉 등에 출연했던 배우 임지규가 맡았고, 배우 임성언이 상대역인 교회 누나 하은을 연기했다. 임지규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게 본 작품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였고, 임성언 또한 같은 이유로 눈여겨 본 배우였는데, 세 사람은 이번 작품을 계기로 의기투합하게 됐다.

#3. 제목

〈교회오빠의 연애QT〉라는 흥미로운 제목은 작가가 큐티를 하던 중 떠올랐다. 큐티는 개인적인 고민을 고백하는 경건한 시간이지만 이번 작품은 크리스천 청년들의 생활상, 가치관, 고민 등을 밝고 재밌게 그리는데 역점을 뒀다. 유쾌한 작품에 대한 감독과 작가의 생각은 배우들의 열연으로 더욱 힘을 받았다.



1. 〈교회오빠의 연애QT〉 제작보고회, 출연자 무대인사 2. 촬영현장 배우 김인호 씨와 연출진
3. 주연 배우 임성언, 임지규 씨 4. 심야 촬영 현장. 엔딩 씬



#4. 촬영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출연한 임지규는 빠듯한 제작일정 속에서 쪽잠으로 피로를 회복하며 촬영에 매진했다. 그는 5일간의 촬영에 대해 특별 새벽기도회 석달을 한 것 같은 기억이라고 추억했다. 임성언 또한 신인배우들이 하룻 아침에 한 컷 찍고 저녁에 한 컷 찍는 일정을 감내하기도 했다. 일교차가 심한 시기라 담요와 핫팩도 필수품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바쁜 가운데서도 촬영은 배우와 스태프 모두 서로 웃음으로 격려하며 진행됐다.

#5. 웃음

CGNTV 어린이QT 〈예수님이 좋아요〉에서 다년간 목소리 연기로 섬겨 온 배우 장광은 실제 아내인 연기자 전성애와 부부로 출연해 실감나는 감초연기를 보여줬다. 장광은 작가의 실제 아버지가 반영된 캐릭터로 예배만 드리면 좋고 옆에서 쿡 찌르면 안 좋았다고 짜증내는 요한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남편을 구박하고 ‘남편이 곧 내 십자가다’ 라고 외치는 요한의 어머니는 배우 전성애를 통해 실감나게 표현됐다.

#6. 소감

요한이라는 캐릭터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교회오빠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진짜 교회오빠가 뭐지?’, ‘진짜 크리스천이 뭐지?’ 라는 물음을 갖게 된다. 촬영 후 작품 속 한 신인배우와 성경공부를 시작했다는 임지규는 “이 드라마를 보는 크리스천들도 작품을 통해 동일한 질문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임성언은 “기도로 촬영을 시작했던 시간을 잊을 수 없다”며 “이 작품이 만드는 이들에게는 설렘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즐거움과 감동으로 남길 바란다”고 고백했다.

선교·교육 콘텐츠

<나침반> & <나침반 바이블>, 월~금 오전 11시 고정 편성

말씀이 가리키는 삶의 좌표. CGNTV 대표 맞춤 특강 <나침반>과 특별 주제 성경 강의 프로그램 <나침반 바이블>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확대 편성됐다. 또 방송 시간이 매일 오전 11시로 고정돼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영적 지혜와 지식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매주 월/화 <나침반 1, 2>, 수/목 <나침반 바이블 1, 2>, 금 <나침반 BEST>가 방송돼 시청자들에게 말씀이 풍성한 평일을 선사할 것이다.

<나침반> 7월의 강사

■ 방송시간: 매주 월, 화 오전 11시



안희정 박사

석용욱 작가

이효천 대표

김세준 대표

■ 맞춤특강 나침반 7월 출연자 및 강연 내용

• 안희정 박사 / 안희정 심리상담 연구소

- 1강: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 2강: 감정 운전대를 잘 잡고 계신가요?

• 이효천 대표 / 위드맘 한부모가정지원센터

- 1강: 사랑은 영이 기억한다
- 2강: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 석용욱 작가 / YWAM 간사

- 1강: 복음, 그림으로 통하고 전하다
- 2강: 예수님이 목수가 아닌 화가였다면?

• 김세준 교수 / 현대 드라마 치료연구소

- 1강: 치유는 훈련이다
- 2강: 놀이가 있는 성경공부(비블리오 드라마)

<나침반 바이블> 여름 특별 강의

■ 방송시간: 매주 수, 목 오전 11시

1. <율법과 복음> (총10강, 2016.06.15~08.17)

- 강사 김형익 목사(광주 뽕살롬교회)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구분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돌아본다.

1강 종이냐 자유인이나 / 2강 신자는 누구인가1 / 3강 신자는 누구인가2 / 4강 신자는 왜 죄를 짓는가 / 5강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 6강 율법과 결혼한 사람 vs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 / 7강 죄, 그 가공할 능력 / 8강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복음이 하는 일 / 9강 복음과 칭의 / 10강 복음과 종생



2. <요한복음 '요한이 말하는 예수'> (총12강, 2016.06.23~09.08)

- 강사 김동수 교수(평택대 신학과 신약학)

저명한 요한복음 연구가를 통해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본다.

1강 요한복음이란? / 2강 예수님은 누구신가? / 3강 예수가 만난 사람들 / 4강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예수 / 5강 스캔들이 된 예수의 말씀 / 6강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나? / 7강 무엇이 유대인들을 눈멀게 했는가? / 8강 예수님이 꿈꾼 교회 / 9강 보혜사 성령 / 10강 예수의 고별기도 / 11강 그리스도의 수난 / 12강 예수의 부활

해외 허입 프로그램

<우리가 몰랐던 무슬림 시즌2>

■ 총10편 / RT 30분 / 방송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50분

베일 속에 감춰진 무슬림. 그들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위해 싸울까. <우리가 몰랐던 무슬림 시즌2>는 '시즌1'에 이어 총 10편으로 방송된다. '코란에 나타난 이사', '무슬림과 관계 쌓기', '알라',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의 여성' 등 10가지 주제에 따라 우리가 몰랐던 무슬림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문화 찬양 사역의 한 길 고마운 친구 CGNTV

“찬양사역자가 필요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주저 없이 이른 땅. 15년 째 태국에서 사역중인 김택곤 선교사는 2001년 8월 15일 옆 동네로 이사 가듯 치앙마이에 입국했다. 타국이었지만 그에겐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불과했다. 2년 간 현지어를 집중 마스터한 그는 주저 없었던 만큼 분명했던 처음 소명 그대로, 지금까지 문화 찬양 사역자로 태국과 함께 하고 있다.

그는 태국에 건강한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이 사역의 가장 큰 목표다. 율로기아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 길 잃은 청소년들을 돌보고, 교회와 태국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문화 찬양 교육을 펼치고 있다. 태국 복음화를 위한 다음 주자들을 세우기 위해 젊은이들을 부지런히 모으고 가르치며 양육한다.

율로기아 크리스천 스쿨은 선교지에 온 한국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다. 그들은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잃었거나 일련의 사건들로 상처받고 우울증을 앓는 등 잠시 길을 잃은 아이들이다. 학교는 정규 교육은 물론 공동체 생활을 통해 다섯 가정의 선교사들이 전인격적으로 살피고 있다.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스스로 공부하고 있고 지난 6월 3일 첫 졸업생들이 배출돼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 합격하기도 했다. 현재 목회자 선교사 자녀 40%, 일



1. 율로기아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
2. 이웃초청 성탄예배
3. 김택곤 선교사 부부
4. 2016년 세례식

반 학생 60%가 함께 공부하고 있다.

목회중인 치앙마이 사랑의 교회는 문화 찬양 사역을 통해 전도된 대학생 중심의 교회다. 셀모임 리더로 세워진 학생들이 주중에는 직접 학교에서 셀모임을 주관하고 주일에는 다같이 모여 예배하고 있다.

이밖에도 그는 문화 찬양 사역 교육을 받은 제자들을 교수로 세우는 재즈 아카데미를 준비 중이다. 또 율로기아 언어학교를 통해 한국어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직업학교도 세워 특수 용접, 바리스타, 스킨케어 등을 교육해 건강한 현지인 CEO를 만들 계획이다.

고국을 떠나 생명 낳는 일에 바쁜 사역의 일상. 그에게도 그간 영적 마중물이 곁에 필요하지 않았을까. CGNTV와 선교사들의 만남이 늘 그렇듯 그는 처음 치앙마이에 선교사로 들어왔을 때, 예비 된 친구처럼 CGNTV를 설치 받았다. 막 사역을 시작하며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길 없을 때 그는 CGNTV를 통해 깊은 은혜를 받았다.

많은 예배, 말씀, 찬양의 프로그램들을 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특히 문화 찬양 사역자로서 고국의 찬양프로그램을 통해 예배와 찬양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

그는 처음 사역지에서 이사하며 뒤이어 들어온 선교사에게 CGNTV를 양도했다. 한동안 CGNTV를 접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기회가 잘 닿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선교센터를 건축하며 CGNTV를 설치하게 됐다. 김선교사는 “CGNTV가 한국 학생과 선교사들의 영성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이뤄진 김 선교사와 CGNTV의 만남은 어떤 열매로 이어질지 다시금 소망이 생긴다.

일본 CGNTV, 구마모토 재해 현장 동참

삶의 터전 잃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난 4월 14일, 16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진도 6.5, 7.3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규슈지역은 비교적 안전하게 생각했던 터라 구마모토 지역 내외부의 사람들은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또한 본진이라 생각했던 첫 지진보다, 이어진 지진의 강도와 피해가 더 컸기 때문에 충격과 공포는 지진의 강도 이상이었다.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두 지진과 뒤따른 여진을 포함해 사망자가 40여 명, 사상자가 1,1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상처가 미처 아물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충격이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진 발생 후 일본 CGNTV는 구마모토에 재해지원 센터를 설립, 재해 특별 취재 보도팀을 4월 19일 화요일에 현장으로 파견했다. 특별 취재 보도팀은 구마모토에 위치하고 있는 '구마모토 베넬교회'의 장소지원을 받아 베이스캠프를 세우고 현지 상황을 세계 각국에 전달했다.

보도팀은 우선 피해가 가장 컸던 마시키마치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의 상황은 마을 전체가 마치 전쟁의 폭격을 맞은 것과 같이 대부분 집이 무너져 내렸고 땅이 갈라져 있었다. 군데군데 피해가 커 보이지 않은 집도 있었지만 마을은 전반적으로 위태해 보였다.



순식간에 자신의 집과 가족, 친구를 잃어버린 마시키마치의 사람들은 인근 대피소에서 허망한 표정으로 앉아 있거나 나누어주는 음식을 먹었다.

지진 후 3일이 지나 큰 위험은 없었지만 계속되는 여진으로 피난민들의 심리상태는 불안해 보였다.

거대한 지진의 피해는 마시키마치의 교회에도 있었다. '구마모토 동성서그리스도교회'는 14일 1차 지진 시 건물이 붕괴됐다. 붕괴 과정 중 목욕탕에 있던 교회 목사님의 딸 토요세 미후미(33세) 씨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건물의 잔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녀는 칠혹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말씀을 되뇌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고 지진 발생 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그녀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건물에 깔린 손이 심하게 부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미후미 씨의 간증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각지에 보도돼 많은 사람들이 구마모토 동성서그리스도 교회와 토요세 목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다.

지진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 일본 CGNTV에서는 긴급구조를 위한 제 2차 팀을 파송했다. 구호팀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파송됐다.

마시키마치 지역은 붕괴위험과 여전히 산재해 있는 위험요소 때문에 인력이 투입되는 피해복구는 불가능

했다. 언론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시내의 구석구석에도 지진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많았다.

여전히 수도와 가스가 공급되지 않았고 집안 내부의 가구들이 무너져서 정리가 어려운 집들이 태반이었다. 구호팀은 규슈재해지원센터와 연합해 수도관 공사, 집안 정리, 청소 등을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다.

CGNTV는 오는 7,8월 피해지역에 아웃리치 팀을 파송해 현지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사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지진 이후 시간이 흘렀다.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지지만 실제로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의 아픔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많은 도움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절실히 필요하다.



미디어 선교사들의 여름 CGNTV 2016 전 직원 아웃리치

뜨거운 여름, 전 직원 아웃리치가 시작된다. 올해도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이란 흔한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은 여정이 이어진다. 떠나보지 않으면 선교지를 알 수 없다는 생각, 섬기고 나눠야 도리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미디어 선교사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부르신 곳으로 향한다.

국내 아웃리치 확대

2016년 아웃리치는 CGNTV의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며,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국내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지난 10년 방송 노하우를 나누는 미디어 사역을 준비했다. 또한 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복구 및 위로 사역 등 국내외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간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미디어 아카데미와 고향 교회 섬김 사역은 국내 사역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출발 인원 전체 129여 명 중 약 76%에 해당하는 98명이 이 사역에 동참한다. 먼저 CGNTV의 미디어 아카데미가 지역별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청주 상당교회와 광주 월광교회를 중심으로 해당지역 목회자들을 섬길 예정이다.

미디어 아카데미, 고향 교회 섬김 사역

커리큘럼은 크게 방송제작(방송기획, 촬영, 편집 등), 방송기술(예배중계, 음향, 영상 등), 인터넷(웹, 홈페이지, SNS 등)으로 나뉜다. 사전 조사한 각 교회들의 필요를 반영해 CGNTV 전문 인력들이 각각 '미디어와 방송선교', '교회 방송 시스템', '사진 강의', '교회 홈페이지 만들기', '교회 영상 제작 노하우'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SNS나 홈페이지 등을 목회에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영상 촬영, 편집 기법 등을 소개하고, 예배를 위한 기본 미디어 환경, 음향, 영상 설비 활용법 등 각 교회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 교회 집중 섬김 사역은 청양 생명나무 교회와 장수 원양교회에서 진행된다. 충북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청양은 65세 이상 인구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청양지역사회에 필요한 일과 이곳의 특산물인 고추, 구기자, 맥문동 농사를 도울 예정이다. 전북 장수 또한 청양과 마찬가지로 초고령화 지역이다. 지역사회 섬김과 특산물인 토마토 농사를 도울 예정이다.

해외 안테나 설치, 재난 지역 위로

해외 아웃리치는 일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총 3개국으로 4팀이 떠난다. 일본 팀은 각각 1, 2차 팀으로 나뉘어 지난 4월 대지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로 향한다. 남아있는 복구 작업과 급식 사역 등을 통해 현지인들을 돕고 위로한다.

이어 인도네시아 팀은 8월 살라티카로 떠난다. 선교사들을 위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고 현지교회의 페인트 보수를 진행한다. 캄보디아 팀은 현지 학원 및 교회 사역을 도우며 현지 선교사를 지원한다.



해외뉴스

미주 CGNTV _ 레위남성성가단 수익 전액 후원

지난 4월 28일, 미주 CGNTV 후원회 운영위원회가 LA에서 열렸다.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미주 CGNTV에서 제작 방송되는 신앙 간증프로그램 'The 부르심'의 출연자들이다. 그들은 "미주 CGNTV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CGNTV의 선교비전을 공유하게 됐다"며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미주 CGNTV의 후원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레위남성성가단은 창단 3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1일 엘바인온누리교회(담임 권혁빈 목사)에서 '다시 30년'을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가졌다. 특히 이들은 큰 울림과 감동을 전한 무대의 수익금 전액을 미주 CGNTV에 후원해 더욱 깊은 여운을 남겼다. 레위남성성가단은 지난 3월 19일 미주 CGNTV와 함께 멕시코 데카테 지역 엘사다이 교회를 방문, 함께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를 계기로 지난 5월 2일 성가단 전원이 CGNTV 후원을 약정한 바 있다.



일본 CGNTV _ 봄 개편 특별 프로그램

일본CGNTV는 지난 4월 봄 개편을 맞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시작하는 교회, 함께 세우는 교회, 변화된 교회, 꿈꾸는 교회'를 테마로 교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특집 다큐] 4교회 이야기>, 참 크리스천의 본을 보여주는 사회 인사들의 삶과 신앙 간증을 통해 차세대 크리스천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기보노 토모시비>, 일본 전통 이야기 라쿠고(만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간 <바이블 라쿠고> 등 새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대만 CGNTV _ 글로벌 차이나이즈 모니터링 그룹 발족

대만 CGNTV가 지난 6월 20일 '글로벌 차이나이즈 모니터링 그룹'을 발족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중국 등 중화권 교회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모집했다. 향후 중화권 선교에 필요한 프로그램 형태(자막, 더빙 등)와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만 CGNTV는 대만 GoodTV와 함께 지난 4월 타이베이에서 진행된 '예루살렘대회'를 현장 중계했다. 대만 침례교단연합회와 대만CEJ(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가 공동주최한 이번 집회는 일본계 이스라엘인 피터 추카히라 목사(갈멜산 교회)가 주강사로 나섰고 나흘간 진행됐다.



아랍 CGNTV _ 미디어 선교 교두보

아랍 CGNTV가 미디어를 통한 현지 선교에 교두보가 되고 있다.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 사역 팀의 레이버 캠프 현장을 취재해 아랍에미리트 내 외국인 노동자 선교 사역을 알렸다. 아랍에미리트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구의 85%에 달한다. 아랍 CGNTV는 향후 꾸준히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관한 정보와 방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차세대 미디어 사역자 발굴도 도모했다. 지난 3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고등부 미디어 팀 3인이 난민 사역현장을 촬영해 영상 제작하는 것을 지도하며 청소년들이 난민 사역에 눈을 뜨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랍 CGNTV가 지난 해 선보인 난민 다큐멘터리에 대한 후속 반응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부천 온누리교회는 다큐멘터리 시청 후, 성도 30여 명이 난민 사역을 돕기 위해 유럽의 난민 사역 현장 방문을 추진 중이며 두바이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다큐 2편 제작 지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태국 CGNTV _ 웹드라마 <Beside> 제작

태국 CGNTV가 오는 7월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Beside>(10분)를 방송한다. 드라마라는 흡입력 있는 장르를 통해 가정 문제가 심각한 태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태국은 현재 이혼율이 매년 2~3배씩 증가하고 있고, 전체 가정의 61%가 음주, 도박, 가정 폭력 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웹드라마는 태국의 주요 CF들이 따뜻한 스토리를 통해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CGNTV _ 방송아카데미 2기 출발

인도네시아 CGNTV는 지난 5월 21일 CGNTV 방송아카데미 제2기 중급과정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교회 미디어 사역의 발전을 위해 시작된 본 과정은 지난 해 1기 과정을 수료한 현지 목회자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훈련 내용은 '실전! 우리교회 홍보영상 만들기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CGNTV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을 통해 인도네시아 교계 리더십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고, 인기 콘텐츠인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인도네시아 CGNTV는 오는 9월 18일 개국 2주년을 맞는다.



국내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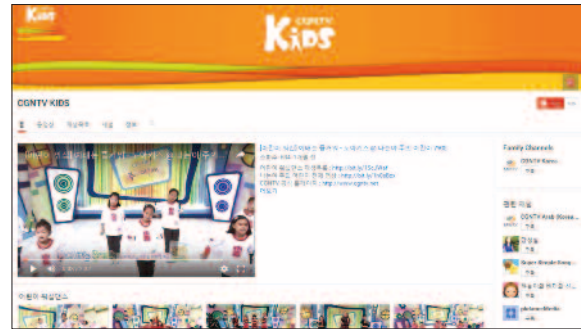
직원수련회, '좁은 문으로...'

CGNTV 직원 영성수련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강사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를 주제로 지난 4월 22, 23일 가평 오륜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됐다. 매년 진행되는 CGNTV 직원 영성수련회는 전 직원들이 참여해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충전하는 시간이었다. 직원들은 평소 교체할 기회가 적었던 타부서 직원들과 조별 활동(조별 골든벨, Face To Face)을 통해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아침고요수목원에서 팀별 자유시간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다.



유튜브 키즈채널 오픈

CGNTV의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들을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됐다. CGNTV는 지난 5월 유튜브에 'CGNTV KIDS'를 오픈하고 CGNTV의 유익한 어린이 프로그램들을 한데 모았다. 어린이 장수 큐티 프로그램 <예수님이 좋아요>(영어자막 포함), <어린이예배>, 어린이 종합 프로그램 <나는야 주의 어린이> 등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아지는 시대에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말씀과 정보 등을 좀 더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YouTube) 앱 설치 후, 'CGNTV KIDS'를 검색하면 된다.



운영위, 오카야마 아웃리치

CGNTV운영위원들이(위원장 정상건 장로) 일본 오카야마 러브소나타 일정에 맞춰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오카야마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총 29명이 참여해 무목교회인 '카리스채플'에 CGNTV 안테나를 지원했고, '사이다이시 그리스도교회', '구영회관교회' 등을 방문해 일본 방송 선교를 위한 CGNTV의 비전을 소개했다. 또 일본 CGNTV 직원들을 격려했고, 대규모 전도 집회인 러브소나타 전 일정에 참여했다. 행사 당일 오전에는 오카야마 역 광장에서 오카야마교회리스트를 담은 전도지 400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노방전도를 진행했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역자 방문

스페인복음주의협의회(FEREDE) 관계자들과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 36명이 지난 4월 20일과 5월 30일 CGNTV를 각각 방문해 CGNTV 사역에 많은 관심을 표하며 향후 사역 협력의 뜻을 밝혔다. 스페인복음주의협의회(FEREDE) 마리아노 블레이크스 버고 대표는 미주 CGNTV의 위성신학교 사역에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사역 등에 참여하여 다양하게 협력하고 싶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은 "CGNTV를 알게 돼 기쁘다"며 "CGNTV의 좋은 콘텐츠들을 인도네시아 지역교회가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CGNTV, 우리교회 굿뉴스콘텐츠

CGNTV 보도팀은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 땅에서 만난 예수 바보'를 찾는, 제 1회 '우리교회 굿뉴스콘텐츠'를 진행한다.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적,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 주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소개하면 된다. CGNTV 홈페이지 내 지원서(기획서, 기사)와 '영상뉴스(1분30초 분량, 스마트폰 촬영 가능)' 또는 '카드뉴스(5~7장)' 형태로 보내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CGNTV 객원기자 기회가 부여되며 각각 '굿뉴스 디벨로퍼상(1명)' 70만원 상당의 영상장비, '디스커버상(1명)' 30만원 상당의 영상장비가 지원된다. '딜리버러상(3명)'에게는 블루투스스피커, 헤드셋, 스마트워치 등의 기념품이 증정되며 당선작은 향후 CGN 투데이를 통해 기사화 될 예정이다. (보내실 곳: cgnews153@gmail.com / 문의 02-3275-9453)



CGNTV 생명의 삶 QT 간증수기 공모전

CGNTV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회 <CGNTV 생명의 삶 QT 간증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주제는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다'이다. 생명의 삶 QT를 통해 은혜가 됐던 사연들을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 내 양식을 통해 작성해 이메일(cgnqt@naver.com) 및 우편(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4층 편성기획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교와 함께 채워진 저금통

한 여성 후원자가 CGNTV로 짧은 손 편지와 함께 곰돌이 저금통 하나를 보냈다. “선교 사남께 힘이 되는 곳에 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였다. 이제 6개월 된 아가 시안이 의 엄마인 그녀는 30대 중반 느지막이 아이를 선물 받았다. 어떤 태교를 해줄까 고민하던 중 기부를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금통을 마련했다. 뱃속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매일 딸랑 딸랑 저금통에 마음이 쌓이는 소리를 들려줬다.

저금통이 채워지는 동안 그녀는 아이에게 또 하나의 소리를 들려줬다. CGNTV였다. 선교에 대한 뜻이 있던 그녀는 생활 가운데 늘 CGNTV와 함께 했다.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 더불어 ‘후원이 많아질수록 더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질텐데’ 하는 마음도 들었다. 아이를 낳고 딱 채워진 저금통은 그녀의 기도의 대상이었던 CGNTV로 도착했다.

지금도 CGNTV는 그녀의 예배처이고 친구다. 그녀는 본방 재방을 여러 번 볼 만큼 주로 CGNTV를 틀어놓고 원하는 말씀 강의를 챙겨본다. 또 경계 없이 유해한 프로그램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소중한 아가에게도 CGNTV를 들려준다.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했던 ‘시므온과 안나’의 앞자를 따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신실한 엄마의 기도는 아이와 선교지에 귀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드림은 캠페인이란?

드림은 저금통 후원은 드림은 캠페인에 사용됩니다.

<드림은 캠페인>은 전 세계 각지에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2만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CGN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후원을 통해 안테나를 달아드리는 캠페인입니다.

[드림은 안테나 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573-910007-69605 / (재)온누리선교재단

신규 프로그램 및 웹드라마 시청소감



|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

시청하는 내내 울고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탈북민들에겐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반면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표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혜선** 님 (51세, 여)

|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

예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무척 달콤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은광 님 (27세, 남)

비파와 수금, 아름다운 목소리와 몸짓으로 찬양하는 시간. 평화로움과 즐거움이 은혜의 강물로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진영** 님 (58세, 남)



| 거룩한 바보들 |

황신애 권사님께서 암송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아보였습니다. 도전이 됐고, 저도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저도 거룩한 바보로 살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김관숙** 님 (44세, 여)



| 교회 오빠의 연애QT |

지금까지 기독교청년들에게 이런 연애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일상 속 나를 보는 것 같이 주인공에 공감했습니다. 드라마가 대한민국 교회오빠의 평균값을 흥미롭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냥 큐티만 하지 말고 <교회오빠의 연애QT>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연애를 찾게 될 것입니다. SNS 커뮤니티 <도움닫기> 운영자

CGN 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십계명(영어자막) 05: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1:10 미니콘서트 섬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7: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믿음(영어자막) 08:5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07:0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08:50 [말씀] 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 10: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7:0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4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10: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7: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새생명비전교회) 07: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0:2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07: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십계명(영어자막) 08:5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거룩한 바보들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6:00 생명의 삶 07:0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9: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0: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1:30 햇불회 강좌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6:50 나침반 바이블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13: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거룩한 바보들	12:30 [말씀]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컨퍼런스] 언어의 축복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1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4:1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2: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50 거룩한 바보들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우리가 몰랐던 무슬림 시즌2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희 목사(뉴욕IN2) 13: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칩 잉그램의 사랑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50 새벽나라 18:00 우리가 몰랐던 무슬림 시즌2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5:50 최은영 교수의 성장 16:4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7:2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8:2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나침반 바이블 23:30 일본 아마토 갈보리 채플예배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20:10 주해홍 교수의 통큰통독 21:0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23:50 페리 노블의 호세아서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9:3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20:10 햇불회 강좌 21:00 하용조 목사의 십계명(영어자막)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거룩한 바보들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크레이그 그로첼의 하나님의 침묵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20:10 CGN 복세미나 책걸음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3:50 데이비드 플랫폼의 라디컬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19:30 [말씀] 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 20:10 최은영 교수의 성장 21:0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23: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10 IBA 비즈니스 미션 컨퍼런스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맥스 루케이도의 두려움 없는 믿음 00:20 생명의 삶	18:20 하용조 목사의 믿음(영어자막) 19:00 IBA 비즈니스 미션 컨퍼런스 20:0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20: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1:2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3:0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00:20 생명의 삶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상단 후원하기 클릭**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0-1660 (한통화 5천원)

* 후원계좌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해외지사 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중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고현준,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식, 김득환, 김명세,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성호, 박영한, 박은영, 박이철,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준희, 선우석, 성필호,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유병진, 유의준, 유이상, 유주희, 윤덕순, 윤석우, 윤원식, 윤진혁,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길수, 이남식, 이동엽, 이밭을, 이병하,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춘희, 이학일, 이호영,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정심, 정용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조옥형, 지성한,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하주현,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3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CS 글로벌** ch.70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M** ch.703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글로벌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ol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3tv** ch.554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캔디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인터넷 서비스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SNS

페이스북을 통해 CGNTV의 최근 소식과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tv

※ 기타시청문의 02-796-9800

말씀 전하는 핵무기 CGNTV

이용만 장로 (CGNTV 운영위원, 前 재무부 장관)

열악한 여건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가는 CGNTV의 행보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같다고 할 정도로 정말 놀랍다.

양치기 소년 같은 범인(凡人)들은 늑대가 제일 두려운 법인데, 다윗은 사자와 곰이 물고 가던 자신의 양을 쫓아가서 빼앗은 인물이다. 또 3m의 키에 전신을 57kg의 청동으로 감고 들고 있는 창끝의 무게만도 68kg 인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인 골리앗을 20세도 안 되는 나이에 지팡이와 물맷돌 다섯 개로 상대했다.

골리앗의 눈에 “덤빌 테면 덤벼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을 어찌 가만히 두겠느냐”하며 앞에 나선 다윗이 얼마나 가소로웠을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담대히 서 골리앗의 급소 미간을 명중시켰고 승리해 역사를 새롭게 했다.

CGNTV에서 그 모습이 겹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맨손으로 시작해 선발 방송 사들을 상대로 170여 국가에 24시간 선교 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하게 됐다는 것은 진정 놀라운 역사다. 함께 하는 직원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여하신 똑같은 영적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다윗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길러주신 힘의 결실이었다. 참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긴 시간 다윗을 훈련 시켰듯이 CGNTV도 그럴 것이다. 지금 그 길 위라고 믿는다. 선교를 향한 CGNTV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수고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

